

F.B.I EXECUTIVE REPORT

ON GLOBAL BUSINESS AND ECONOMY



Hanyang Univ. School of Business

FOREIGN BUSINESS INTELLIGENCE



Contents June 06, 2012

Biweekly Report

- 2** Euro Crisis: Why a Greek Exit Could Be Much Worse than Expected?
김지연, from TIME
- 5** Spain Bails Out Its Third-Largest Bank
김형기, from The Wall Street Journal
- 8** A Bull Diminished
조은영, from The Economist
- 10** HP's Missteps Culminate in Loss of 27,000 Jobs
이창석, from TIME
- 12** Goodbye to Windows Live (and Whatever It Meant)
황철현, from The New York Times

Cover Stories & Special Report

- 14** ニッポン企業のための新興国ガイド～ミャンマー編
현지윤, from Nikkei Business
- 19** After Barreling Ahead in Recession, China Finally Slows
서지용, from The New York Times

Euro Crisis: Why a Greek Exit Could Be Much Worse than Expected?

* 기사출처: [TIME \(2012.05.22\)](http://time.com/2012/05/22/)

* 요약자: 김지연 (jiyeon7303@hanyang.ac.kr)

* 키워드: 그리스, 유로존 탈퇴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유럽 경제에 불러올 손실”



- 경제학자들은 그리스가 경제적 위기로 인해 유로존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 결과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추측
 - G8 정상회담에서 그리스를 유로존에 남기자는 것에 대해 모두 말만 앞세울 뿐 실질적인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
 - 그리스가 유로화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할 손실은 유럽 도처에 도미노와 같은 파급 현상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됨
- 첫 번째 시나리오는 그리스가 유로화를 포기하고 자국 통화인 드라크마로 변경함에

따라 통화 가치가 평가절하되고 부채 상환 부담이 증대되는 상황

- 그리스가 본래 자국 통화인 드라크마로 돌아가게 되면 그리스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통화의 가치는 평가절하될 것
- 이 경우 유로화로 매겨진 부채 상환 부담이 더욱 증대되는데, 그리스 밖에 있는 채권자들은 통화 가치가 낮은 드라크마로 받는 것을 거부할 것이기 때문
 - 반면 그리스 채무자들의 입장에서는 유로화보다는 드라크마일 경우 부채를 더 낮은 가격에 청산할 수 있게 됨

□ 두 번째 시나리오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다른 유로존 국가들에게 부정적인 도미노 효과를 초래하였다가 몇 년 후 차츰 회복하는 상황

- 평가절하된 드라크마로 인해 결제통화 종류 결정에 있어 그리스 채권을 가진 해외투자자들과 그리스 채무자 간의 법적 분쟁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
- 또한 그리스와 채무 관계를 가진 은행들이 손실을 입고, 이는 은행들과 채권 및 채무관계를 가진 수많은 다른 은행들에게도 전가되는 도미노 효과가 발생
- 이후 그리스로 인해 손실을 입은 은행의 국가는 집중적으로 세금을 투입할 것인데, 역설적이게도 그리스의 은행과 경제 시스템은 이러한 도움으로 인해 몇 년 후에는 안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또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유로존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추측도 제기됨

- 아르헨티나와 아이슬란드는 통화 붕괴를 겪었지만 환율하락으로 인해 1~2년 만에 위기를 회복
 - 만약 통화를 유지했다면 위기 극복을 위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었을 것
- 이처럼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경우 그리스는 평가절하된 통화 덕택에 위기를 극복 할 수 있는 반면 유로존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존재
- 그리스가 유로존 밖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해진다면 유로존 내 국가들은 재정 정책을 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유로존 탈퇴 압박을 받게 될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유럽 전체에서 보면 오히려 더 큰 재정적 문제들이 발생하게 됨

□ 미국에 필적하는 경제적 독립체가 된 만큼 유로가 더욱 위기에 빠진다면 그 경제적 영향은 세계를 흔들 만큼 위력적일 것

- 그리스의 유로 탈퇴는 한 국가만의 재정적 결과에 머무르지 않고 EU, 더 나아가 전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줄 가능성 내재
- 전문가들은 그리스 유로 탈퇴의 결과를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시나리오로 보지만은 않지만, 현재 유로존이 얼마나 예측하기 힘든 상황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 **FBI**

Spain Bails Out Its Third-Largest Bank

* 기사출처: [The Wall Street Journal \(2012.05.28\)](#)

* 요약자: 김형기 (curiaroman@hanyang.ac.kr)

* 키워드: 스페인, 방키아, 긴급구제

“부실 위기에 빠진 스페인 3대 은행 방키아(Bankia)의 회생방안”



- 부동산 거품 붕괴와 최근 그리스 위기 발발이 스페인 3대 은행인 방키아(Bankia)의 부실을 초래
 - 방키아는 2010년 7개 저축은행과의 합병으로 탄생한 스페인의 자산규모 3대 은행
 - 4년 전 부동산 거품 붕괴 이후 스페인 은행들 중 부동산 관련 대출이 가장 많은 방키아가 큰 타격을 입음
 - 현재 스페인의 미 판매 신규주택은 100만여 채이며 부실 부동산 대출액은 50억 유로에 달함
 - 이러한 우려로 주가는 상장 이후 58% 하락하였고 현재 매매가 정지됨
- 유럽 지도자들은 최근 그리스의 정치적 문제 및 유로존 탈퇴 가능성으로 인한 스페인인들의 부실 확산을 우려

- 스페인의 경제규모와 복잡성을 고려할 때 위험성은 그리스보다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음
- 스페인 정부는 스페인과 유사한 부동산 위기로 2010년 EU와 IMF의 구제금융을 받은 아일랜드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 노력

□ 이러한 위기에 맞서 방키아는 국가적인 지원과 함께 이사회 규모 축소, 부동산 자산 탕감계획과 같은 자구책을 강구

- 방키아의 경영진은 스페인 수상 마리아노 라호이와의 협상을 통해 자금지원을 이끌어 냈다고 발표
- 또한 18명의 이사 중 16명을 해고하였고 이사회 규모를 10명으로 축소
- 127.5억 유로 규모의 개발업자 대출과 저당자산으로 구성된 부동산 자산 탕감계획을 발표
 - 계획안 성공 시 포트폴리오의 약 50%의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현금 확보 기대


□ 스페인 정부 역시 국영화를 골자로 한 방키아의 회생 방안을 모색

- 은행에 대한 외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스페인 역사상 최대규모인 190억 유로를 투입하여 방키아를 국영화할 것이라 발표
 - 이미 정부는 모기업인 BFA(Bancro Financiero & de Ahorros SA)의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도록 하여 방키아 주식의 45%를 소유
- 방키아가 재무부 또는 은행구조조정자금(FROB)의 빚 보증을 담보로 유럽중앙은행에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
- 또한 정부는 약 150억 유로 규모의 네 번째 탕감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은행 합병 유도가 주요 목적

□ 그러나 외부에서는 여전히 방키아의 회생이 성공적일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정부는 채권발행으로 은행구조조정자금을 확충하고자 하여도 대출이자 상승과 자

금수요 하락이 맞물려 용이하지 않다고 발표

- S&P는 스페인 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것을 우려하여 방키아의 신용등급을 BBB-에서 한 단계 하향한 BB+로 조정
 - 아울러 모기업인 BAF의 신용등급도 BB-에서 네 단계 하락한 B+로 조정
- 게다가 전례 없는 정부의 큰 지원금은 다른 스페인 은행 또한 부실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추측을 만들어내고 있는 등 방키아의 회생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A Bull Diminished

* 기사출처: [The Economist \(2012.05.19\)](#)

* 요약자: 조은영 (eunpure@hanyang.ac.kr)

* 키워드: 브라질, 경제둔화, 기회

“오랜 호황 후 성장 둔화 국면에 접어든 브라질 경제”

□ 2011년 BRICs 가입 이후 브라질 경제는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호황을 보임

- 2010년 브라질의 경제 성장률은 7.5%를 보였고, 세계 7대 경제대국으로 등극
- 안정적 성장, 소득 불평등 완화, 글로벌 상품 시장에서의 붐을 보이며 지속적이고 정치적으로도 조화로운 성장을 이룸

□ 하지만 2011년 BRICs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인 반면, 브라질은 그렇지 못함

- 브라질을 제외한 나머지 BRICs 국가들은 4.3~4.9%의 경제성장률을 보인 반면, 브라질의 경제성장률은 2.7%에 그침
- 미국의 한 국제관계 평론잡지는 브라질에 경기침체가 왔다고 표현하였고, 다수의 언론매체 역시 브라질의 현 경제상황을 비관적으로 전망

□ 생산성, 저축과 투자라는 측면에서 볼 때 브라질의 낮은 경제 성장률은 당연한 현상

- 기존 브라질의 경제 성장은 교역조건과 민간부문 신용도 향상에 기인하였으나 이는 계속해서 경제호황에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주된 요인이 되지는 못함
- 실질적인 경제 성장은 생산성 향상과 투자의 증가로 이루어지지만, 브라질의 연간 생산성 성장률은 0.9%에 그치고, 투자는 GDP의 19%만을 차지
- 여기에 치솟는 임금 상승과 통화의 평가절상까지 합해져 전문가들은 브라질의 연간잠재성장률 예측을 3.5% 수준으로 하향 조정


□ 브라질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존재하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것이며, 높은 세율은 여전히 미해결 과제

- 현재 브라질의 금리는 낮아지고 있는데, 저금리로 갈수록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지만 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
 - 전년 동기 대비 대출이 8%이상 감소했고, 대출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높은 점으로 보아 큰 효과는 없을 것
- 비슷한 소득 수준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복잡한 세금징수 구조와 GDP의 36% 수준에 해당하는 높은 세율도 브라질 경제에 악영향을 미침

□ 최근의 정치적 불안요소도 브라질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됨

- 브라질 석유 및 가스 에너지회사인 페트로브라스(Petrobras)와 세계 최대 규모의 철강 회사인 발레(Vale)은 지금까지 주주들의 이익보다는 정부의 목표에 맞춰 운영해 옴
 - 이에 다국적 투자 회사들은 브라질에 대한 투자를 삭감
- 브라질 정부는 재산을 존중한다고 공언하지만 최근 스페인 석유회사 YPF를 몰수한 아르헨티나에 대한 침묵적 태도 유지는 투자자들의 신뢰 하락을 부추김
 - 국제사회와 EU의 비난이 거세지만 아르헨티나는 브라질의 중요한 무역국이라는 이유로 침묵 일관
- 올해 초 미국 석유 회사 셰브론(Chevron)의 멕시코만 석유 유출에 대한 가혹한 사후 대처도 외국 회사의 브라질 투자에 악영향
 - 이 사고로 브라질은 셰브론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였고, 셰브론의 관리자들을 수감

□ 하지만 경기 둔화는 브라질 정부의 위기대처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며 농업, 채굴, 교육, 건강과 같은 분야에서는 아직도 기회가 많다고 전망

- 현재의 위기는 정부의 위기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경제 상황의 악화를 방지할 대안을 강구하게 하는 기회
- 큰 성장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농업, 채굴, 교육, 건강과 같은 분야에서 부분적인 경제호황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HP's Missteps Culminate in Loss of 27,000 Jobs

* 기사출처: [TIME \(2012.05.24\)](#)

* 요약자: 이창석 (laims2@hanyang.ac.kr)

* 키워드: **HP 구조조정, 비용 절감, 혁신**

“비용절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을 감행한 HP”

□ HP가 역대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을 시행함에 따라 상당 수준의 비용절감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

- HP는 73년 역사 이래 가장 큰 규모의 구조조정을 결정하였으며 2014년까지 전체 직원 수의 8%인 2만 7천여 명을 감원할 예정
 - 조기퇴직 프로그램으로 정리하고 비율 최소화
- 직원 감축 및 기타 절약 방안을 통해 매년 30~35억 달러를 절감할 것으로 보이며 절감된 비용은 수익성 개선과 제품/서비스 개발에 투자할 계획

□ HP는 기존에도 지속적으로 혁신을 추구하여 왔으나 최근 몇 년간 업계 트렌드를 읽는 데 실패함에 따라 저조한 성적을 보여옴

- HP의 CEO 맥 휘트먼은 관료주의에서 탈피해 소비자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혁신을 위해 R&D 인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옴
- 그러나 스마트폰과 태블릿PC로의 변화 추세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함에 따라 시장 주도권을 잃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PC와 프린터 판매 실적 또한 급감
 - 회사 가치는 2010년에 사직한 CEO 마크 허드의 재직 시절의 절반 수준
 - 비즈니스 소프트웨어와 컨설팅 서비스사업 역시 IBM과 오라클에 밀리고 있는 상황

□ 이러한 상황에서 역대 최대 수준의 대대적인 개편은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불안요소로 작용

- 지난 10년간 두 차례에 걸친 구조개편, 그리고 현재 PC 부서와 프린터 부서의 통합이 진행 중이며 다음으로 구조조정을 시행할 분야는 아직 미정

- 투자자들은 빌 벅티가 마이크 린치를 대신하여 최고전략책임자의 자리를 수행하는 것과 같은 대대적 개편에 대해 염려
 - HP가 작년에 자치기구 인수를 위해 110억 달러를 지불한 것과 같은 실수를 재연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한편, 구조조정으로 절감한 자금은 제품개발에 적극 투자될 계획

- 맥 휘트먼은 구조조정이 당사자들에게는 부정적이겠지만 회사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장기적 생존에 필수적인 조치라고 주장
 - 덧붙여 HP의 목표는 낮은 비용으로 고객에게 더 좋은 결과물을 제공하는 것이라 언급
- 온라인 소프트웨어 서비스와 클라우드 컴퓨팅, 컴퓨터 보안관련 제품개발에 집중 투자할 것을 강조 **FBI**

Goodbye to Windows Live (and Whatever It Meant)

* 기사출처: [The New York Times \(2012.05.26\)](#)

* 요약자: 황철현 (chul@hanyang.ac.kr)

* 키워드: **브랜드 확장, 윈도우 라이브**

“MS의 착각이 초래한 윈도우 라이브(Windows Live) 브랜드 확장 실패”

□ 윈도우 라이브(Windows Live)의 탄생배경을 통해 알 수 있는 브랜드화 과정

- 윈도우 라이브의 탄생배경은 MS가 2001년 크게 성공을 거둔 Xbox Live Service에서 유래하는데, 'Live'라는 용어가 윈도우와 MS오피스 브랜드에 생동감을 줄 수 있다고 판단
 - 빌 게이츠는 윈도우 라이브 브랜드가 사용자의 삶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

Xbox Live Service

Xbox Live 는 MS 가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멀티플레이 게이밍, 디지털 미디어 전달 서비스이다. 2002 년 11 월에 엑스박스 게임기에 처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게임 포 윈도우 라이브는 윈도우 비스타 PC 시스템의 장점을 부각하며, 라이브 애니웨어 이니셔티브의 일부로서 휴대용 기기와 휴대 전화와 같은 다른 플랫폼으로 라이브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2010 년 현재 윈도우폰 7 에서 구현되어있다.

출처: 위키피디아

- 2006년 MS는 'MSN 메신저'를 '윈도우 라이브 메신저'로 브랜드 명 변경하였으며 현재에는 윈도우 라이브 물, 윈도우 라이브 검색, 윈도우 라이브 등으로 브랜드 확장

□ 그러나 윈도우 라이브의 브랜드 확장 전략은 경영진들의 착각, 연관 없는 제품들의 통합 브랜드화, 소비자 인식 미미 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실패

- 첫 번째 실패요인은 MS 경영진들이 PC 사용자들이 윈도우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으며 윈도우 라이브 브랜드가 모든 방면에서 발전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할 것으로 착각
 - 인터넷 사용량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실제로 인터넷 사용자들은 자


신의 PC가 무슨 운영체제인지에 대해 대부분 무관심

- 두 번째 실패요인은 다양한 신제품에 통합 브랜드 전략을 구사하려면, 그 신제품들은 공통점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연관이 없는 제품들을 통합하여 브랜드화
 - 애당초 Xbox의 'Live'를 관련 없는 윈도우에 적용시킨 것이 문제
- 또 다른 실패요인은 윈도우 라이브 출시 이후 소비자에게 새로운 브랜드를 전달하는데 실패함에 따라 브랜드 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미미
 - 미시간 대학교의 브랜드 애착 연구 결과에 의하면, 소비자에게 사랑 받는 브랜드는 공통적으로 소비자 개개인의 가치를 반영
 - 애플 하면 창조성이 떠오르는 반면, 윈도우 라이브는 브랜드 강점이 없었고 결과적으로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애착 또한 없음

□ 이와 같은 윈도우 라이브의 실패에 대해 MS는 그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뒤늦은 대처를 보이고 있는 상황

- MS의 경영진은 윈도우 라이브의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대규모 투자로 인해 아직 윈도우 라이브 브랜드를 없애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수 차례에 걸친 브랜드화로 인하여 MS의 거의 모든 제품들이 윈도우 라이브 시리즈로 변경됨
- MS는 향후 윈도우 8의 출시 준비가 완료되는 즉시 윈도우 라이브 브랜드를 철수시킬 계획
 - 윈도우 라이브 브랜드를 철수시키고 Xbox Live에만 집중할 계획

□ 새로운 플래그십 운영체제인 윈도우 8의 등장으로 인해 윈도우 라이브 향방 변화에 귀추가 주목됨

- 윈도우 8은 그 동안 따로 되어있던 윈도우 라이브 제품 및 서비스 패키지를 통합하여 제공할 예정
- 또한 윈도우 8의 사용자들은 타사 제품과 서비스의 무료 설치 및 호환이 가능해짐에 따라 별도의 브랜드 또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가 없게 될 것 

ニッポン企業のための新興国ガイド～ミャンマー編

* 기사출처: [Nikkei Business \(2012.04.27\)](#)

* 요약자: 현지윤 (ozma@hanyang.ac.kr)

* 키워드: **미얀마, 시장 개척**

“미얀마 진출 기회와 과제를 통해 본 미얀마 진출의 타당성 분석”

□ 새로운 정부의 민주화와 시장개방주의 정책노선은 전세계에 미얀마를 매력적인 투자처로 알리는 계기가 됨

- 4월 1일 보궐선거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통솔하는 NLD(민주주의민족동맹)가 승리하였으며, 테인 세인 정권은 민주화와 시장개방주의 노선의 정책을 펼 전망
 - 이를 높이 평가한 유럽과 미국은 대 미얀마 경제 제재를 일부 완화
- 미얀마는 아시아의 마지막 미개척지로 평가되어 세계의 시선을 모았으며, 일본 기업의 진출도 활발
 - 마루베니와 미쓰이 물산, 쿠보타 등은 이미 미얀마에 사무소를 개설하였으며, 스즈키와 혼다도 미얀마 진출을 검토 중

□ 미얀마에서의 사업 가능성을 보여주는 3대 요소는 노동력, 시장성, 지정학적 위치

- 미얀마 인구는 6,000만 명 이상이며 젊고 값 싼 노동력이 풍부
- 국가 성장과 함께 인프라도 정비되어 감에 따라 미얀마 자체의 잠재적인 시장성도 확대되는 추세
- 지정학적으로는 세계의 성장동력인 중국과 인도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인도양에 접한 서쪽 관문이 될 수 있음

□ 큰 규모의 노동시장, 양질의 노동력, 주변국에 비해 낮은 임금 등 생산거점으로서의 높은 매력도 보유

- 젊은 노동자가 많고 인구의 68%가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어 이들이 제조업으로

유입될 경우 매우 큰 노동시장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음

- 평균 연령 26세로, 베트남보다도 훨씬 젊은 연령대
- 기초교육이 잘 되어있어 문맹률이 낮으며, 외국어 가능자도 높은 비율
 - 2008년 기준 문맹률은 남성이 5.4%, 여성이 10.8% 수준으로 낮은 편
 -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을 학습하는 인재도 다수
- 공장노동자, 기술자, 중간관리자 등 노동자 임금이 주변국들에 비해 매우 저렴
 - 공장노동자 임금은 태국의 1/5, 베트남의 1/2이며,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봉제공장 진출 활발
 - 유능한 중간관리직은 노동시장에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들의 임금은 태국의 1/3, 베트남의 7/10이며 캄보디아, 방글라데시와는 비슷한 수준

달러/1년	상하이	싱가폴	방콕	호치민	양곤	프놈펜	다카
공장노동자	7,497	23,375	5,662	2,302	1,137	1,438	1,438
기술자	13,393	40,058	11,464	4,780	2,623	3,000	4,721
중간관리자	25,690	69,125	26,580	11,688	8,449	10,450	9,843

□ 다중환율제도, 언더 머니(under money) 탓에 미얀마의 경제 실태는 정부 공식 자료와 괴리가 크지만, 현 정권의 방침으로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감

- 최근까지 미얀마에서는 현금 환율, 태환권 환율, 관세 환율, 공식 환율 등 다수의 환율지표를 혼용해왔기 때문에 실제 경제와 공식 발표 간에 차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잦은 혼란 발생
- 또한 정부 부패가 심하고 뇌물 수수가 일반적인데, 이러한 뇌물은 언더 머니로서 실제 경제와 공식 자료 상의 차이를 발생시킴
 - 국제투명성기구의 조사 결과 2011년 미얀마의 부패지수는 183개국 중 180위
 - 과거 공무원 임금이 극단적으로 낮아 뇌물이 성행할 수 밖에 없었던 세태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언더 머니(under the money)

언더 머니는 바이어가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현금으로 건물 가격의 일부를 지불하고 셀러는 건물가격 일부를 현금으로 받아 소득세를 안내는 부동산 매매방식이다. 셀러와 바이어 모두 IRS 감사를 피해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 불법이지만 거래 되고 있다.

출처: 위키피디아

- 현 정부의 민주화·경제개방노선 정책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 **한편 통신 인프라의 미비로 휴대전화 보급률이 저조하나 점차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

- 2010년 조사에 의하면, 미얀마의 휴대전화 보급률은 7%로 매우 저조한데 이는 정권의 정보 규제가 심하고 통화품질이 나쁘며 기본요금이 월 50달러로 선진국보다 높은 것에 기인
- 그러나 최근 집전화 및 휴대전화 보급 증가로 통신 인프라 구축 개선의 조짐이 보이고 있음

□ **생활가전 역시 아직 가정에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으며, 일본 등 해외 제품에 대한 선호가 높은 편**

- 2010년 33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냉장고와 세탁기는 각각 18%, 5%의 가정만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TV는 흑백TV 포함 69%로 높은 보급률을 기록
- 일본을 비롯한 해외 제품의 선호도가 높으므로 이러한 특성을 사업 기회로 활용하면 유리할 것

생활가전 보급률(%)							
다리미	선풍기	밥솥	전기난로	냉장고	드라이기	세탁기	에어컨
46	31	30	27	18	9	5	3

영상·음향기기 보급률(%)						
컬러TV	비디오 플레이어	라디오	카세트 플레이어	위성방송 수신기	흑백TV	휴대용 CD플레이어
64	59	42	16	8	5	2

□ **주요 교통수단은 자전거와 오토바이이며 자동차의 대부분이 중고이지만 정부 규제완화로 자동차 구매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

- 중고차가 자동차의 보유대수의 95%나 차지하지만, 작년 9월에 정부가 자동차 구

입축진을 위한 규제완화 실시

- 넓은 차의 폐차증명서와 신차 수입허가증을 무료로 발급하고 있으며, 소형차의 수입 라이선스를 철폐하는 등 정부 규제가 완화됨

□ 미얀마는 지정학적으로 중국 · 인도 · 메콩강 유역 국가에 둘러싸여 있으며, 미얀마 정부는 이 점을 이용해 각지에 경제특별구(SEZ)를 지정

- SEZ로 지정된 곳은 다웨이(Dawei), 톨라와(Thilawa), 짜옥퓨(Kyauk Phyu)등이며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진출을 노리고 있음
 - 북쪽에 위치한 짜옥퓨는 석유 및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거점
 - 톨라와는 주변 인구가 많아 노동력 조달이 용이하고, 인프라 구축이 진행 중
- 이 중에서도 다웨이는 태국 민간업체가 개발을 맡아 육로를 정비 중이며, 향후 항구로서의 잠재력도 막대
 - 현재 태국의 화물은 태국 람차방 항구에서 싱가포르, 말라카 해협을 거쳐 서쪽으로 이송
 - 그러나 다웨이가 항구 기능을 갖추게 되면 태국에서 다웨이까지 육로로 화물을 운송한 후, 다웨이 항에서 인도 · 아프리카 · 중동 등으로 출하 가능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얀마에는 기회와 과제가 공존하므로, 진출에 있어 신중한 고려가 요구됨

- 수출입 규제, 이익금 송금 제한, 인프라 미비, 정부 부패 등 여러 위험요소와 과제들이 존재

- 그러나 노동력과 시장성, 지정학적 특성 등과 같은 기회도 공존하기 때문에 미안
마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들은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 달성에 진출이 필수
적인지를 평가해야 할 것 **FBI**

After Barreling Ahead in Recession, China Finally Slows

* 기사출처: [The New York Times \(2012.05.24\)](#)

* 요약자: 서지용 (jonglelsta@hanyang.ac.kr)

* 키워드: 중국, 경기 둔화

“세계 경제 침체 속에서도 성장하던 중국, 결국 둔화세로 이어져”

□ 중국 경제 여러 부문에서 경기 둔화의 모습이 보이는 추세

- 경제의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건설부문 노동자들은 대거 일자리를 잃었고 소매업계의 성장률은 최근 3년 중 최하를 기록
- 올해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도 2001년 이후 어느 해 보다 작은 증가폭을 보임
 - 2011년 4분기와 비교하여 2012년 1분기는 아주 미미한 성장을 보였으며 2분기는 1분기 보다 더 낮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
- 경기 침체는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해안 인근 도시들을 넘어 내륙지역의 도시들 에까지 영향
 - 부동산 가격 하락, 수출 하락세가 전반적 경기 둔화를 초래
 - 2008년 중국 정부의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로 호황을 누렸으나 현재 시안을 포함한 많은 도시들의 경제가 둔화

□ 민간 부문에서도 중국 곳곳으로 스며든 경기 침체의 영향이 발견됨

- 중국 북서쪽에서부터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상인들이 모이기 시작하여 중국 내륙의 심장부로 재건된 시안은 현재 하락세인 소비자 지출로 인해 그 맥박이 희박한 상태
- 한 시안시 부동산 중개업자는 연초부터 하락한 아파트 가격이 연초 대비 현재 20%나 폭락했다고 진술

□ 거대 소비국가인 중국의 경기 둔화는 중국만이 아닌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

- 중국은 전세계적으로 철광석, 구리와 같은 원자재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이며 원유 부문에서도 두 번째로 큰 소비량을 기록


- 또한 유럽의 공장 부품 및 명품 구매의 큰 손 역할
- 유럽과 미국이 경기침체를 겪는 동안 이러한 대규모의 소비를 통해 중국이 홀로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으나, 최근 중국의 경기둔화로 세계 경제 성장의 방향성 상실이 우려됨
- S&P와 무디스는 최근 부진을 보이는 아파트 판매로 많은 부동산 개발업자가 심각한 자금 압박에 놓일 것이라 경고

□ 중국 정부 차원에서도 경기 둔화로 인한 위기 의식이 고양되고 있는 상황

- 중국 원자바오 총리는 최근 내각회의에서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위기 해결에 대한 강력한 성명을 도출
 - 월별 구매 관리자 지수가 49.3에서 48.7로 하락해 침체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보여줌
- 정부 대변인은 정부가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기라는 것과 변화하는 상황에 따른 정책조정과 세부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역설
- 일부 내각에서는 철도, 학교, 병원과 같은 기반시설의 빠른 건설과 확충을 통해 경제를 부활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음
 - 중국은 정부 지출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금융 자원 보유
 - 중국 은행의 예대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

□ 현재의 사회 인프라 현황,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을 미루어 보았을 때 중국 경제를 부활시키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 중국의 인프라는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구축되어 비용 대비 편익을 만족시키는 프로젝트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
 - 시안의 일일 교통량은 그리 많지 않으나 미국 케네디 국제 공항의 수용량과 비슷한 규모의 공항 건설
 - 세 개의 순환도로가 있는데도 시안과 정조우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
-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제거하고 주택공급을 더 원활히 하기 위해 적용하였던 주택 다량보유 금지 정책으로 인해 주거용 부동산 건설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부동산 경기 침체 역시 심화

- 정부가 발표한 지수에 따르면 중국 상위 70개 도시 중 무려 절반 이상의 도시에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음
- 또한 전국의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아파트 가격의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조명사용과 일하는 시간을 축소
 - 낮으로 근무시간을 바꿔 건설 인부들에 대한 수요를 줄여 건설인부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일자리를 찾는 것이 힘들어지고 있음 

FBI는 한양대 경영대학의 비상업적 지식봉사 동아리로, 본 보고서는 글로벌 경제/경영 이슈에 대한 교내 상호 학습을 위해 동아리 학생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외부에서 보고서를 요청하는 경우, 교외 지식봉사차원에서 무상으로 공유하고는 있으나 다른 상업적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보고서 구독신청 및 변경 (fbi.hanyang@gmail.com)

Advisor: 이웅희,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victory@hanyang.ac.kr)

Editor in Chief: 김한결 (rocky87@hanyang.ac.kr)

Associate Editor: 박나현 (nh313131@hanyang.ac.kr)

Copy Editor: 김형기 (curiaroman@hanyang.ac.kr), 양정렬 (yjddui@hanyang.ac.kr), 장은혜 (avechs@hanyang.ac.kr)